

‘위기를 기회로’ 자구책 마련 힘모아

2004 불교출판 결산

장기화된 불황과 출판시장 위축으로 고사위기에 빠진 불교출판계는 위기를 기회로 바꾸기 위한 활로 모색으로 그 어느 때보다 힘겨운 한 해를 보냈다.

올해 들어 출판사당 대어섯 권도 채 출간하지 못할 정도로 위축된 불교 출판사들은 불교출판의 현실을 짚어보고 그 해결책을 찾기 위해 지난 7월 ‘불교출판의 현실과 미래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

를 개선하기 위해 시작된 ‘붓다와 떠나는 책 여행’은 지난해 출범한 ‘종이거울 바로보기 운동’과 함께 불교계에 독서문화 형성에 일조할 것으로 보인다.

불황 속에서도 올해 일어난 선(禪) 수행 열풍을 반영하듯 불교 출판계에는 선을 주제로 한 책들이 속속 발간됐다. <불교 수행법과 나의 체험> <禪 너는 누구냐> <불교수행법강의> 등 선원장 법회와 답선법회 등의 물결을 타고 수행 관련서들이 출간돼 큰 인기를 끌었다.

협회 창립, 본말사 도서관 설치·필자 공동개발 등 추진
선 열풍으로 수행서·큰스님 법문집 출간·판매 늘어
명상·요가서 꾸준히 인기... 어린이 책도 줄줄이 나와

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50여 명의 출판 관계자들이 모여 불서읽기운동과 교구본사 도서관 설치, 도서공급장구 일원화 등 불황 타개를 위한 다양한 대안을 제시했다.

출판사들의 이러한 움직임은 불교출판문화협회(회장 원택) 발족으로 이어졌다. 9월에 창립된 불교출판문화협회는 1992년 출범했으나 활동이 저조했던 불교출판협회가 확대 재편된 것으로, 20여 개 불교 출판사들이 참여하고 있다. 불교출판문화협회는 앞으로 본 말사 도서관 마련, 필자 공동개발, 공동 유통망 형성 등의 사업을 펼침으로써 불교출판 활성화에 물꼬를 틀 것으로 기대된다.

불교출판 활성화를 위한 또 다른 시도로 불서읽기운동도 전개됐다. 지난 10월, 불교계 출판 불황의 근원인으로 지적돼왔던 ‘책 안 읽는 분위기’

특히 큰스님 법문집은 꾸준한 인기를 누리고 있다. 지난해 말부터 올해까지 큰스님의 열반과 열반 1주기 맞아 스님들의 법문집이 다양하게 선보였고, 이 중 지난해 말 일적한 청화 스님의 법문을 담은 <마음 부처가 사는 나라>와 지난해 출간된 <가장 행복한 공부>는 독자들의 많은 사랑을 받았다.

비구니 스님들의 출간도 활발했다. 미국 보스턴 서운사 주지 서광 스님이 <알몸이 부처되다>와 <문제는 항상 부모에게 있다> <현대심리학으로 풀어본 대승기신론>를, 하버드 유학을 마치고 돌아온 소운 스님이 <하룻밤에 읽는 불교>와 <하버드에서 만난 부처>를 각각 펴냈다. 초기불전연구원 장 대립 스님이 펴낸 <정정도론도 불교출판계의 큰 수확이다. 이 밖에 뎀진 빠오 스님의 <미공공부> 지율 스님의 <지율, 숲에서 나온다> 대안 스님



장기화된 불황과 출판시장 위축으로 버랑 끝에 내몰린 불교출판계는 지난 7월 ‘불교출판 현실과 미래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고 출판문화협회를 결성하는 등 자구책 마련에 나섰다.

의 <사찰음식 다이어트> 등이 눈길을 끌었다.

최근 3~4년 동안 베스트셀러였던 명상·요가 서적은 올해 ‘웰빙’ 열풍을 타고 그 맥을 이었다. 달라이라마의 <용서>와 <365일 명상> <달라이라마 삶을 이야기하다>를 비롯해 틱낫한 스님의 <마음모음> <아! 붓다> <틱낫한 스님의 금강경> 등이 책을 통해 마음의 안정과 평화를 찾으려는 독자들의 꾸준한 사랑을 받았다. 요가 관련 서적으로는 도서출판 여래의 <요가의 세계> <달라이니오>를 비롯해 직장인·임산부·어린이를 위한 요가실용서 등 30여 권이 넘는 책이 발간됐다.

지난해부터 운주사와 솔바람 등이 앞장서 온 어린이 불서 출간도 계속됐다. 운주사는 <만화로 보는 부처님 전생 이야기> <부처님 지혜를 배우는 불교우화 41가지>를, 솔바람은 <마음을 밝혀주는

60가지 이야기>와 <선사들의 삶과 깨달음>을 펴냈다. 이 밖에 <마음속의 샘물> <찰나나무처럼> <거미줄> <손오공의 보물> <행복해지는 거울> 등 일반 출판사가 펴낸 어린이 불서도 주목을 받았다.

이 밖에 2005년 독일 프랑크푸르트도서전에 소개될 불서로 <지불의 선사상> <선가귀감> 등 4권이 선정됐다. 하지만 불교가 우리 전통문화를 보여줄 수 있는 정수임에도 선정된 책이 너무 적다는 지적도 있었다.

올 한해 협회 창립 등 자구책 마련에 나선 불교출판계가 수행열풍으로 높아진 독자의 불교에 대한 관심을 ‘출판 활성화’로 이어갈 수 있을지 기대된다.

여수령 기자 snoopy@buddhapia.com

한국불교 맥 이어온 선사들

시대별 고승·선사 80여명 수행일화·가르침 담아

“책을 통해 법맥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치열한 수행과 올바른 가르침으로 진정한 깨달음을 얻은 선사들이 많이 나오고, 그들이 중생의 빛이 되고 ‘죽비’가 되고 길잡이가 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는 것을 널리 알고 싶습니다.”

삼국시대 이 땅에 발을 들인 불교는 지금껏 어떻게 이어져 왔을까? 한국불교의 맥을 이어온 선사들의 삶과 그 법맥의 흐름을 정리한 책이 나왔다. <불맥(佛脈)-한국의 선사들>은 영남일보 김신근·김봉규 기자가 각 시대별 고승과 선사 80여 명의 수행 일화, 가르침 등을 기록한 책이다.

한국불교의 법맥을 중심으로 고승들의 치열한 수행 발자취를 되짚어 보는 이 책은 6~7년 전 영남일보에

연재됐던 ‘불맥’ 시리즈를 엮은 것으로, 올해 초 지은이들이 한국언론재단의 연구·저술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이후 1년 동안 사진부 이지용 기자와 함께 자료 수집과 사진 촬영을 위해 전국의 사찰을 돌아다니며 발품을 팔 결과물이다.

책의 주요 내용은 고승과 선사들의 삶과 가르침이다. 지은이들은 조계종을 중심으로 한국불교의 다양한 사상

과 가르침이 어떻게 펼쳐지고 맥을 이어 흘러왔는지 독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소개하고 있다. 독자들은 이 책을 통해 조계종 스님들의 중심 수행법인 간화선(看話禪)의 선맥(禪脈)이 어떤 과정을 거쳐 오늘에 이르르고 있는지도 알 수 있다.

특히 선사들의 출가과정과 목숨을 건 수행과정, 깨달음과 그 이후 그들이 보여준 삶과 가르침 등에 관한 상

세한 소개는 읽는 재미를 더해 준다. 지은이들은 “최근 불자들 사이에 중국 선법이 최고인 양 중국의 선 관련 번역서에만 몰두하는 경향이 짙다”면서 “자나친 중국불교의 의존은 자칫 우리 불교의 독자성을 스스로 망각하게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과정에서 여러 고승들과 오도승, 열반승 등 선사들의 시와 법문들이 많이 추가됐고 고승들의 법맥(法脈) 계

보인 불조선택도와 구산선문 법계도를 함께 실었다. 직접 발로 뛰며 법맥을 좇았던 이들은 “일부 법통은 인맥 중심으로 흐르게 되고, 이는 폐쇄적인 문중의식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다”며 “법맥을 위한 법맥이 아닌 인맥 중심의 법맥이 아닌 진정한 깨달음의 맥이 힘을 발휘하는 풍토가 형성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불맥(佛脈)-한국의 선사들
김신근·김봉규 지음
우리출판사 | 1만2천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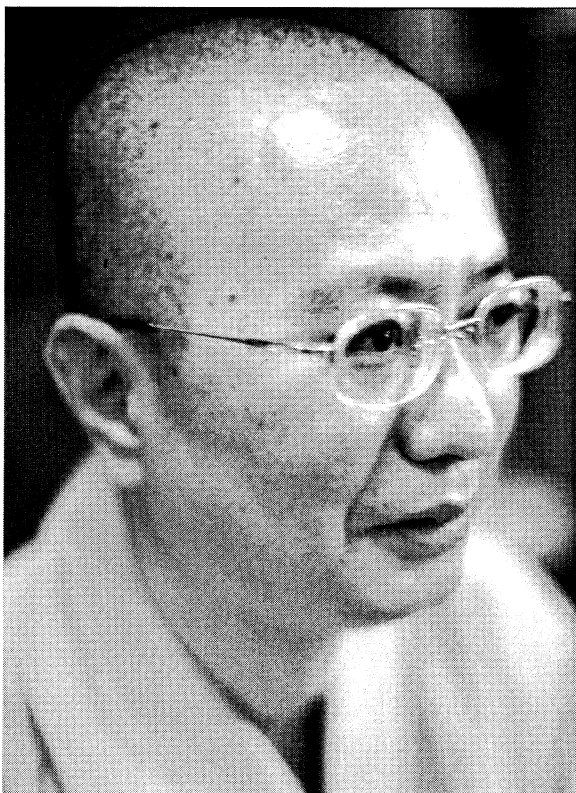


禪으로 깨우치는 반야심경

역경의 체증을 통해 깨닫는 이 시대의 야부 선사! 대원 문재현 선사(전강 선사님 인가제자)의 감로법문 바로보인 반야심경으로 책도 출간되었습니다. 일시: 매월 첫째주 일요일 오전 11시-12시

www.zenparadise.com
☎ 02-522-0122, 011-785-0122

“난장판 세상에 떨어진 불벼락 같은 책”



이판사판 화엄경

정치, 경제, 사회, 종교 총체적으로 난장판인 세상의 판을 바꿔 장엄한 세계로 이끄는 인류 최고의 행복 지침서!
본질에서 벗어난 정신없는 세상인 사판을 통째로 바로 잡고 이판의 지혜를 일깨우는 화엄의 죽비 소리!
어그러진 삶을 사는 동시대 모든 이들의 정신을 똑바로 차리게 해주는 성법 스님의 사자후!
배꼽 잡으며 읽다가, 촌철살인 같은 지혜의 불벼락을 맞고 이판사판으로 삶을 바꾸게 되는 엄청난 책!

언론이 주목한 2004년 최고의 지혜서!

살과 수행의 백과사전인 화엄경을 속속 들어오게 풀이했다 - 중앙일보/ 부끄러운 한국 불교의 지화상을 나타내는 책 - 조선일보
한 편의 에세이를 읽는 듯 재미있는 불교 이야기 - 경향신문/ “보시는 투자가 아니다. 어리석음은 독” 등 현대인을 위한 삶의 지혜서 - 해럴드 경제
철단 과학 이론까지 접목시켜 흥미롭게 설명한 책 - 한국경제/ TV에 방영돼 정경이 된 <영원한 대자유인>에 대해 조목조목 비판 - 한겨레
바로 읽는 불교 강전, 상투적 해석을 개탄하며 초기 불교정신을 드러내고 있다 - 문화일보/ 화엄사상이 그의 손을 거치면서 새롭게 태어났다 - 세계일보
‘인간은 욕심으로 꼭 찬 욕계(欲界)에 머문, 형편 없는 율체’라고 갈파하며 화엄경의 지혜를 알기 쉽게 전하고 있다 - 현대불교신문

성법 스님: 1957년 태어나 중등 고등학교 졸업, 동국대학교 불교 대학원에서 수학하고 현재 대한불교 조계종 부처님 율사 주지, 국내 최대 인터넷 불서사 ‘불교대전총문www.sejon.or.kr’ 운영자. 20년 동안 경전 읽기와 수행에 전념했으며, ‘스원성 보림회사’로 전락하는 현실 불교 개혁론을 펼치고 있다.



이판사판 화엄경 - 재미있고 혁명적인 화엄경 계승 불교
성법스님 지음/신국문/값 11,000원/정신세계원 출판

이판사판 判判書: 본래 화엄경에서 나온 말로 세계의 두 가지 차원을 일컫는다. 이판이 눈에 보이지 않는 본질의 세계에 대한 판단이라면, 사판은 눈에 보이는 현상세계에 대한 판단이다. 삶의 진실과 행복은 이판과 사판의 조화 속에 있다.

www.mindvision.org 정신세계원
tel.02.747.7033 / fax.02.747.7034

출간 2주 만에
교보 베스트 10 1위권
진입(종교 부문)!